

열린 예배

- 최유찬 목사

[CHANGE] - 실험 1. & 2.

- ㉠. 마음의 불편함.
- ㉡. 포기함. (잃어버릴 것을 먼저 생각함)
- ㉢. 혼자뿐이라고 생각함.(협동을 안함-도움을 청하지 않음)
- ㉣. 어느 정도 이상은 불편함.(ex : 뱀 구덩이 속에서의 사람)
- ㉤. 자원의 부족을 하소연 함. (주변의 관찰 부족 / 자원은 창조입니다.)
- ㉦. 변화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함.
(빨리 변화에 적응하고 협조하는 사람은 전체의 약 16% 뿐입니다.)
- ㉧. 변화 이전의 과거로의 회귀현상이 나타남
 - 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계속해야 함, 실수를 두려워 마십시오.
 - 포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중 하나일 뿐입니다.

1. 열린 예배는 변화 이지 변질이 아닙니다.

2. 열린 예배는 이미 한국 교회 안에서 오래 전부터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3. 열린 예배는 한국 교회에 새로운 희망으로 전망이 밝습니다.

1) 교회와 교회 간의 교인 이동으로 인한 갈등 해소의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2)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며 새로운 영적 공급의 공급처입니다.

3) 기존 교인의 質的 (삶과 봉사)성장과 교인의 數的 부흥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4. 열린 예배에 대한 방향 제시

1) 교회가 한마음으로 준비 - 기존 신자의 도움 없이 불가능(기존:50%, 새신자:50%)

2) 각자 교회에 맞게 설정

3) 대상과 목표를 세우고 실행

☞ 참고1 - 새신자를 위한 열린 예배

열린예배는 복음에 대한 낯선 사람, 하나님에 대해 관심은 있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 아직 교회 문화에는 친숙하지 않지만 복음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예배이다.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밀히 파악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음악을 선정하고, 드라마, 영상이나 발레 등 특별 순서를 정할 때 복음을 듣는 대상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열린예배를 성경적인 근거없이 준비하면 마치 문학의 밤이나 쇼 같이 될 수도 있다. 열린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왜 열린예배가 필요한가?

한국 교회는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으며 숫자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교회는 대체적으로 수평이동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90% 이상이 전도를 받았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기성 교회는 신용을 잃었기 때문이며 둘째, 교회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지금까지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을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 제자훈련, 성경 공부 등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양육 문화가 강화되면서 전도아 선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감소되었다. 열린예배와 같은 불신자 지향적인 예배를 통해 예배 문화를 새롭게 정의 내려야 한다.

열린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하셨다. 우리는 교회에서 많은 행사와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천국에 가면 할 수 없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다. 바로 그 사역을 열린예배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온누리 교회 새신자 예배

온누리 교회에서 주일 저녁에 드리는 새 신자 예배도 열린 예배이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정된 주제로 준비된 설교와 드라마, 발레, 영상, 간증 등으로 기획된다. 새 신자 예배에 찬양곡은 그 날 설교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그 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영상과 드라마를 사용하는 목적은 그 날 설교 말씀에 대한 생각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설교 말씀을 통해 성경에 근거한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이다.

지난 3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다. 복음 가수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렸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장애인들을 위한 열린 예배도 준비하여 신체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성극을 준비해서 믿지 않는 이웃을 초청해 함께 예배 드렸다. 국악팀과 발레팀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새 신자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로 다가서기 위함이다. 불신자들을 위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할 때,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도록 도울 수 있다. 설교 용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어색해 하며 누치를 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쉬운말로 설명하고 이해 시켜야 한다. 사회자의 중간 멘트나 순서 소개 등 불신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 선택도 신중히 한다. 후보도 교회에 처음 나온 분들에게 어색하지 않게 디자인 한다.

열린 예배의 문제점

첫째, 사람들의 관심만을 사로잡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성서적인 신학 근거보다 문화적인 호응도를 높이는 형식을 추구하게 된다. 열린 예배는 예배 형식의 변화보다는 예배자의 마음의 변화를 안겨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정리된 신학을 문화적으로 상황화 시켜야 한다.

가끔 우리는 사대주의 사상으로 외국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나 아이디어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열린 예배에 대한 신학과 목회 철학이 문화적인 이론이 아니라 성서적인 이론인가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들에게 적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 성서적 원리들을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게 모든 프로그램을 디자인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성서적 원리를 상황화 시킨 후 내 자신이 먼저 그러한 삶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불신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열린 예배를 기획하게 되면 역설적인 프로그램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먼저 믿지 않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열린 예배는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넷째, 삶 속에서 연결되는 관계는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 이뤄져야 한다. 열린 예배는 그 자체가 문화적인 창의성과 탁월한 기획을 요구하기 때문에 행사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명 인사를 초대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준비하다 보면 처음에 의도했던 불신자들에 대한 사랑과 기도하는 간절한 마음보다는 형식의 우수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대치될 수 있다.

지역 교회에서 어떻게 열린 예배를 시작할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기도한다. “하나님, 저의 친구를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나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기도한 후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최선을 다 한다. 교회에 오는 이들의 성격과 문화와 취향과 문제와 고민과 걱정들,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한다. 교회에 열린예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리더십들을 찾아가 적극적인 지원도 부탁한다. 일대일로 만나 설명하고 비전에 대해 나눈다. 기회가 주어지면 교인들 앞에서 비전 설명을 하고 기도문도 만들어 돌린다.

셋째, 열린 예배에 대한 뜻과 마음을 가진 사명 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팀을

만든다.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아이디어를 정리한다. 팀원들의 각자 열정과 은사를 분석하여 사역에 보람과 즐거움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세워 준다.

넷째, 열린 예배를 준비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팀을 은사대로 구성하고 리더를 세워 사역별로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팀 발전을 이뤄 간다. 불신자를 위한 예배는 사탄의 방해가 가장 치열하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중보기도팀을 세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값비싼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한다. 열린예배를 위해 시간과 정력과 열정과 헌신과 재정 등 희생이 요구된다. 한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기뻐하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여러분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감당치 못할 교회'를 세울 것이다.